

우리출판의 수준 아직도 낮다

안희준

서울대 박물관장

한 나라나 민족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문화임에 틀림이 없으며, 문화의 핵심은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잘 발현되어 있는 학술과 예술이라고 본다. 이것들을 활자와 도판을 활용하여 인쇄해서 널리 배포하고 오래도록 기록으로 후세에 남게 하는 것이 출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출판의 중요성은 굳이 장황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출판은 곧 문화적 역량의 척도이자 그 표상인 것이다. 따라서 출판물을 이루는 내용과 구성, 편집과 인쇄, 활자와 종이, 장정과 제본 등 어느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출판이 질과 양 양면에서 옛날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온 것은 경하할 일이다. 일부 출판물들은 외국에 내어놓아도 별 손색이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우리의 출판물들이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월등 났다고 여겨져 기쁜 심정이다.

그러나 좀더 냉철한 입장에서 최근에 범람하는 우리의 출판물들을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검토해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된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출판물의 핵심인 글의 내용과 수준이다.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서적과 잡지들에 실려있는 글들을 보면 알찬 내용과 세련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들 못지 않게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것들도 상당수 존재되어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공허한 내용, 허술한 구성, 요령부득의 난삽한 문장이 뒤엉킨 불량한 글들이 허다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글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출판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무엇이든 출판되는 것이 멀리 보면 출판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너그럽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 출판물들이 출판문화 발전에 끼치는 크나큰 해독은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다. 기왕에 출판을 할 것이라면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을 다듬고 문장을 손질해서 알찬 것을 내놓는다면 보다 보람되고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는가. 흔히 눈에 띄는 오자와 오류도 전혀 경시할 수 없는 취약점이다. 이것들이 출판물의 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출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부실한 내용의 글과 함께, 요령만 부린 읽기에 불편한 편집, 눈에 거슬리는 활자, 정교하지 못한 인쇄, 선명하지 않은 도판과 삽도, 수준 낮은 장정, 허술한 제본, 종이도 훌륭한 출판물 위해서는 유의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집필자, 편집인, 인쇄인, 디자이너, 제본기술자 등 출판에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의 안이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출판 문화의 개선을 위한 결연한 자세의 부족이라 하겠다.

공부를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출판물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출판물들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늘 감탄과 함께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출판물들에게 간취되는 알찬 내용, 세련된 문장, 훌륭한 편집, 아름다운 장정, 눈에 편안함을 주는 활자, 선명한 도판, 견실한 제본이 어우러져 있는 점이다.

이러한 우수한 출판물을 접하면서 누군들 어찌 그 나라를 호감을 가지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우수한 출판물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문화홍보 수단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도 한시바빠 우리 출판의 질과 수준을 더 한층 높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출판대상의 엄격한 선정, 창의적 편집, 철저한 교정, 명료한 인쇄, 품위 있는 장정, 견실한 제본, 출판 종사자들의 성실한 노력 등이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표지인물	2	제자리서 제할말 하는 또하나의 문화 「글읽기와 씹읽기」 펴낸 조혜정 교수
초점	4	출판사 기획위원제 운영 본격화한다 '시주 기획' 한계 탈피 노력... 석박사 공개채용도
해외화제	6	한 유럽 시골마을에 세워진 책의 고성 — 신창섭 세계각국 애서가 발길 끄는 '레뒤'를 가다
서평	8	프라이스 「과학커뮤니케이션론」 — 김동원 김영문 외 「등소평 정치사상」 — 이희욱 9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 조돈문 김정배 「북한의 고대사연구와 성과」 — 이기동 10 진덕규 외 「5공평가대론」 — 박길성 아르토 「잔혹연극론」 — 최준호 11 카이와 「놀이와 인간」 — 이상일
확대서평	12	사상사 시각서 천착해본 통일의 화두 — 김찬호 김용욱 외 지음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시집서평	14	오솔길로 접어든 난장이들의 긴 행렬 — 장현동 이 여름의 시집서평
출판화제	16	부부관 변화 탓인지 이혼 관련서 쏟아진다 혼인의 실패 아닌 문제 해결 차원서 접근
소식	17	동아출판사 컴퓨터통신 도서판매
이 책 그 사람	18	「천냥짜리 입담」 펴낸 최래옥교수 「나를 연다」 펴낸 강만홍씨 19 「우리말 유래사전」 펴낸 박일환씨 「우리아이 글쓰기...」 펴낸 김명숙씨
연재기획	20	책을 책답게 하는 책의 형식적 위력 — 김상환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④ 집짓기와 글짓기
출판화제	23	정신과 의사들도 인기저자로 부상 「배짱으로 삼시다」 이후 독자들 관심 부쩍 높아져
세계의 책	24	판화의 기원과 그 제작기술의 발전사 — 배병삼 데이비드 랜다우 외 「르네상스 판화」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